

“아이들 미래 위해 헌신하는 삶 이어가겠다”

●나금석 광주시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

광주 솔로몬로파크 개관 기여 공로 법무부 감사패 받아
2011년 소년원과 인연... “법 체험으로 민주시민 성장”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묵묵히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최근 광주 솔로몬로파크 개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 감사패를 받은 나금석(60·사진) 광주시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은 15일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얼핏 보면 솔로몬로파크와 아이들을 위한 봉사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나 회장과 아이들의 인연은 지난 2011년 고령정보산업학교(광주 소년원)에서 맺어졌다. 당시 법부사로 활동하던 나 회장은 지인의 추천으로 소년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나 회장의 봉사는 한 번의 만남에 끝나지 않고 주기적으로 이어졌다. 때로는 아버지의 눈높이에서, 때로는 형처럼 편안하게 아이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해준 결과 나 회장은 어느새 소년원의 멘토로 자리매김했다.

아이들과의 유대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 회장의 마음엔 안타까움이 커졌다. 죄를 지어 소년원에 들어온 건 맞지만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사람 자체를 나쁘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자존감을 해치고 있어서다.

때문에 나 회장은 아이들의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위해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개인이 아닌 단체로 활동하기 위해 같은 해 광주시 소년보호위원회에 이름을 올리며 다양한 교육·인성 프로그램을 추진, 실행했다.

그렇게 아이들을 몰심양면으로 돕다 보니 광주시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2017-2022년)과 전국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2021-2022년)도 역임하게 됐다.

전국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 시절, 나 회장은 솔로몬로파크가 광주에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릴 때부터 법을 놀이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체험한다면 아이들이 나쁜 길로 들어서지 않고, 건강한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는 구상에서다.

이에 나 회장은 광주 솔로몬로파크가 성황리에 문을 열 수 있도록 수차례 이곳을 찾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살폈고,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대표적인 공로는 광주 솔로몬로파크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1억원 상당의 ‘정의의 여신상’ 기증과 대형 화분 등 필요 물품 기탁이다.

그 덕에 지난 14일 개관식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광주 솔로몬로파크는 호남 유일의 법체험 테마파크라는 이름에 걸맞은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 임기를 마친 나 회장은 올해부터 광주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을 맡아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고 있다. 나 회장의 봉사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다. 소년원의 아이들이 한 번의 잘못에 주눅 들지 않고 여타의 또래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나금석 광주시 소년보호위원회협의회장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 달라”는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봉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나조차도 믿기지 않는다”며 “봉사와 기부는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 같다”고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이어 “몸이 허락하는 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맑은 자리에서 묵묵히 활동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안재영기자



포스코그룹 ‘2023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

포스코그룹이 국내외 2만7천여명의 임직원 이 봉사활동을 펼치는 ‘2023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는 전 세계 포스코그룹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서 임직원들이 나눔을 펼치는 특별봉사 주간으로 지난 2010년 시작해 14년 간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임직원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창단한 ‘포스코봉사단’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글로벌 모범시민 위크의 콘셉트도 지난 20년간 이어온 아름다운 나눔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인 ‘온고지신(溫故知新) : For a Better World 20’으로 정했다.

이번 행사에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 부회장, 광양주재 사장단은 지난 13일 광양 태인동에 위치한 문화재 김시식지(金始植址)에서 문공지 교체, 마루 콘택트 작업 등 문화재 돌봄 활동에 참여했다.

전기수리 봉사활동에 참여한 정동민 봉사단원(광양제철소 제선설비부 소결정비섹션)은 “지역사회에서 펼쳐온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헌혈로 나눔 실천할 수 있어 기뻐요”

강대승 해군 3함대 상사 헌혈 300회 ‘최고명예대장’
헌혈증 200장 기증 이어 남은 100장도 혈액원 기부

“27년 간 이어온 작은 이웃사랑이 더 큰 나눔으로 전달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강대승(45) 해군 제3함대사령부 상사는 최근 목포시 헌혈의 집 유달센터에서 300번째 헌혈을 하게 되면서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최고명예대장’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적십자사는 다회 헌혈자에 대한 감사와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헌혈유공패를 수여하고 있다. 누적 헌혈 횟수에 따라 헌혈을 30회 실천

한 경우 ‘은장’, 50회째엔 ‘금장’, 100회째에는 ‘명예장’, 200회째에는 ‘명예대장’ 그리고 300회째에는 ‘최고명예대장’ 순이다.

강 상사는 1996년 처음 헌혈을 시작한 후 27년간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오고 있다.

고교 재학 시절, 위급 환자들에게 수혈할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 헌혈을 했으며 200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생명 사랑 실천에 꾸준히 동참하고 있다.

2013년 헌혈 100회를 달성,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명예장’을 받았으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2018년에는 200번째 헌혈을 실천, 헌혈유공장 ‘명예대장’을 수여받았다.

강 상사는 헌혈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은 물론, 음주도 자제하고 있다. 또 평소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해 수시로 마라톤, 헬스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기며 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그동안 모은 헌혈증서 300장 중 200장은 이미 수혈이 필요한 지인들에게 나눠줬으며 이번 300회 헌혈을 계기로 남은 헌혈증서 100장도 수혈



이 필요한 환자들을 돕고자 대한적십자사 광주 전남 혈액원에 기부했다.

강대승 상사는 “작은 실천이 모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더 큰 나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해군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전역하는 날까지 500회를 목표로 꾸준히 헌혈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동부경찰, 치안 종합성과 관리전략 보고회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및 과·계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치안 종합성과 관리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23년 치안 종합성과 평가를 대비해 기능별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주거 인구 증가 등 변화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주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안 고객 만족도를 향상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영일 동부경찰서장은 “그간 직원들의 고생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힘들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치안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도 전 직원이 워팀으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감 치안 활동을 펼치지”고 당부했다. /안태호기자



광주매일신문, 온누리 아동센터 ‘NIE 3차 순회교육’

지역신문 발전기금 미디어 교육사업에 선정돼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지난 14일 광주 북구 온누리지역 아동센터를 방문, 제3차 신문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1, 2차 순회교육 때 배웠던 기사의 특성과 기사 쓰기 실제 사례들을 신문 편집디자인의 원리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방법

들을 공부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기운(양지초 5)·김라희(본초초 5)·박누리(양지초 5) 학생은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진과 기사를 직접 편집디자인 해봤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 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준기자



전남교육청-키즈라라 ‘진로체험 활성화’ 협약

전남도교육청과 화순 소재 ‘키즈라라’가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5일 “전날 키즈라라 1층 OT홀에서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근호 진로자문관, 이주홍 지역사회협력자문관, 진로교육팀 양희룡 장학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업체험 및

탐색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교원들의 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워크숍 등에 상호협력 ▲키즈라라 실내-외를 활용한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관한 직업체험테마파크 키즈라라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8천128㎡ 규모로 약 30개의 직업 아이템을 체험할 수 있는 직업 체험관, 영유아체험관, 푸드코트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2만4천㎡에 달하는 잔디광장은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김대기자

‘마지막 탄광’ 화순광업소, 고별음악회 개최

이번 달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화순 광업소를 위한 고별음악회가 열렸다.

15일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8시 본관에서 국내 1호 탄광인 화순 광업소 폐업의 아쉬움을 달래는 고별음악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광부 및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춤-씻김굿, 국민의례, 연탄표 증정식, 고별사, 기념사, 영상 시청, 노래자랑 순으로 이어졌다.

화순광업소는 1905년 국내 1호 탄광으로 탄생해 1989년 1천600여명의 직원이 연간 7만5천t의 석탄을 생산하는 등 절정을 이뤘지만 도시가스 등의 영향으로 2020년대 이후 연간 생산량이 10



만 이하로 줄어들어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2025년까지 전국의 탄광을 모두 폐광하기로 한 산업통상자원부 결정에 따라 지난 4월30일부터 석탄 채굴을 중단한 화순광업소는 오는 30일까지 폐광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화순=이병철기자

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천 플로깅’ 봉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15일 “전날 광주천 가꾸기 활성화를 위해 어스 체크 플로깅(Earth-Check Plogging)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임직원 및 건협 사랑어머니봉사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천 광암교-동천교 구간 환경정화 활동과 수질 정화 개선을 위해 식재한 노랑꽃장포 관리활동 등을 진행했다.

박종석 본부장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복기자



광주 백운휴먼시아3단지 작은도서관 커뮤니티 복합프로그램 공간 ‘탈바꿈’

광주 백운휴먼시아3단지 주거복지지원센터는 15일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복합 프로그램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백운휴먼시아3단지 아파트의 반딧불 작은도서관은 기존에는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에서 입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상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어린이부터 주부, 어르신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요가교실 ▲한지공예수업 ▲캘리그래픽과 더불어 ▲강년기 상담공간이 운영돼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도서관 내 작은 음악회를 통해 가곡, 동요,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도 선보여 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성학기자